



그리스도인, 돈과 마주하다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⑥ 황익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일반 금과 순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 금은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지만, 순금은 돈의 가치를 갖는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도 순금이며, 역사적으로도 순금은 국제무역에서 항상 돈으로 활용되었다. 창세기 2장 12절은 하벨라 땅의 “금은 순금”이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순금 곧 돈을 주신 것이다.

인간은 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문자를 제외하고 돈은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돈은 모든 물질관계 정립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에서 이 돈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 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되 “빈손으로 여호와의 피우지 말고”라고 말씀한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물질관계는 현금, 그 중에서도 십일조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돈 즉 현금이라는 수단은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다. 한편 사도행전 5장에서 아

나니아와 삼베라 부부는 평을 관 돈의 일부만 드리면서 집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시했기 때문이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물질관계 정립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실적인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 물질적 보상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돈은 구체적이면서도 순쉬운 보상 수단이자 정의 실현의 도구가 된다. 일례로 창세기 20장 16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어 사라에 대해 보상한다.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관계가 보상을 통해 즉, 돈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돈은 차선책에 불과하며 미흡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다. 성경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돈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출애굽기 22장 16, 17절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피어 동침하였으면 남매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 주기를 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남매금으로 돈을 벌지니라”고 기록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비례적 정의, 시수적 정의, 보상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돈은 이중 보상적 정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비례적, 시수적 정의는 유사한 가치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의 이해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 만약 내 가족들이 이웃의 발을 망쳐 놓았다면,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이처럼 서로 이해가 다른 관계에서의 정의 실현은 대부분 보상적 정의를 갖는다. 성직 등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돈은 정의로운 인간관계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돈은 올바른 물질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돈은 모든 것들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상품들의 가치를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잘 경영되고 있는지는 결국 돈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종의 관리 책임은 돈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덴동산에서도 인간은 관리 책임을 맡았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한다. 이사야 62장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집과 포도밭을 관리하게 된다.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가 뒤따라야 하며 여기에 돈은 필수적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돈은 인간의 삶에 윤택함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은 돈에 대해 가르쳐주는 유익한 교과서이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성경을 통해 돈의 기능을 잘 파악하였고 금융 분야를 개척하였다. 돈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보존 기능과 교환 기능에 대하여 성경 기 14장 24~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앞에서 나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나 권리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 را를 매장하고자 은 사백 세겔을 주고 산 헤브론의 땅은 수천 년이 지나고, 그곳을 지배했던 왕들이 수없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팔죽 한 그릇에 샀다. 장자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권리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유대적 사고방식은 오늘날 특허권이라는 상품 가치를 만들어 냈다.

성경에서 성년은 돈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30장 14~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이십 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기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즉,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어 치루는 성년식이란 돈을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는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돈을 주고받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년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돈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경제동물이 아니라 경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돈에 대한 성경적 교육이 결실하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란 곧 돈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임을 잊지 말자.



황의서 독일 쾰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한국 기독교 경제학회 회장(이지 사) 기독교세계관(총연합회) 학원이사이며 기독교학문연구회 경제/경영 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통일 이야기(아산미디어), '경제와 신앙(시그마프레스), '재성을 이기는 30가지 경제 마인드(행복한 집), '경제발전과 경제윤리(서광사) 등이 있다.